

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충남여성

2005 가을·겨울 통권 제23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 02** 1. 권두언
_ 지난 1년을 돌아보며 / 이재우
- 04** 2. 기획특집
_ 고령화사회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 강신옥
- 08** 3. 여성가족부
_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열었다
- 13** 4. 정책제안
_ 충청남도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최은희
- 21** 5. 문화열보기 / 여성과 문화
_ I 인간의 오점汚點 / 이춘아
_ II 이달의 책
- 27** 6. 충남 지역 여성소모임을 찾아서
_ 소리클럽 / 이영세
- 32** 7. 알아봅시다
_ 충청남도 11월의 자원봉사왕 / 최선미
- 36** 8. 알림
_ 도소식 / 여성계소식 / 본원소식
- 47** 9. 함께하는 생각
_ 겨울아침 / 진명희
_ 아픈 한 해를 보내며 / 김인숙
- 50** 10. 충남여성포럼
_ 여성농업인의 건강실태 및 증진방안 / 권정숙
- 52** 11. 함께하는 이야기
_ 가정폭력 상담사례 / 한희자
- 56** 12. 개원이후 사업실적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원장 이재우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저물어갑니다.

연구사업을 돌아보며,

금년에는 용역연구 사업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의뢰받은 '아동기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연구',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예술 교육' 등 총6건의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완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 '충남 보육정책5개년 계획' 등 7개 기본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도내 초등학생들의 영어구사 능력과 국제 감각 등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충남 초등 영어캠프'를 위탁받아 지난 1월과 8월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을 돌아보며,

올 해는 저희 원의 교육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여성의 인권보호와 예방을 위한 기본교육이 진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중앙 및 충청남도에 서 요구하는 위탁교육사업이 활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인상에 남는 교육사업을 소개한다면 “혼인귀화 여성 및 가족들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타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시되어 언론 및 매스콤의 관심을 받았고, 이와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부의 평등가족 교육운영기관 관리 사업과 국제결혼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위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이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며 본 원은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선도적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충청도민 그리고 여성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획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정책



강신옥 청주시니어클럽 회장

인간은 서로 서로 환경과 조건이 다르므로, 말할 필요 없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도 예외일 수 없지만, 노인은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노인 간에도 건강수준이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80세가 되었어도 건강하여 사회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60세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수발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의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있어 경제적 능력은 젊은 시절부터 축적되어진 것이고, 노인은 노동능력

이 젊은이들과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그 차를 극복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노인의 두 가지 특징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5)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행 중이며, 2018년에는 14%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저출산의 영향으



로 우리나라는 서구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한 서구의 선진국들이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각하게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의 자살, 학대, 경제적 빈곤, 질병 및 수발문제 등 최근 다양한 노인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노인문제 중에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과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양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정책의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서구의 여러 나라의 노인들이 은퇴 후에 사회보험(공적연금, 사적연금, 은퇴연금 등)의 소득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대부분이 사적 소득(저축, 자녀들의 지원)이나 노동시장 내에 진출하여 단순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고령화속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 노년기를 보내야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21세기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 중의 하나인 고령화 사회를 생산적이고 활기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것은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도 아직도 건강하고 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노동력을 사회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인의 일자리에 관한 논의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일자리와 노동시장 밖에서의 일자리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우선 노동시장 밖에서의 일자리





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의 긍정적 사회참여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목표아래 2004년 부터 노동시장 밖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 참여정부의 주도하에 계속될 예정으로 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들게 될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은 정책의 대상층인 노인들에게는 무척 고무적인 일이고 실제로 노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우리사회 노인의 노동력 활용의 사회적 공감대와 긍정적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이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의 노동공급

이 변화 될 것을 대비하여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국가의 사회보장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경제적인 소득을 보충하기 위함인지 구체적인 정부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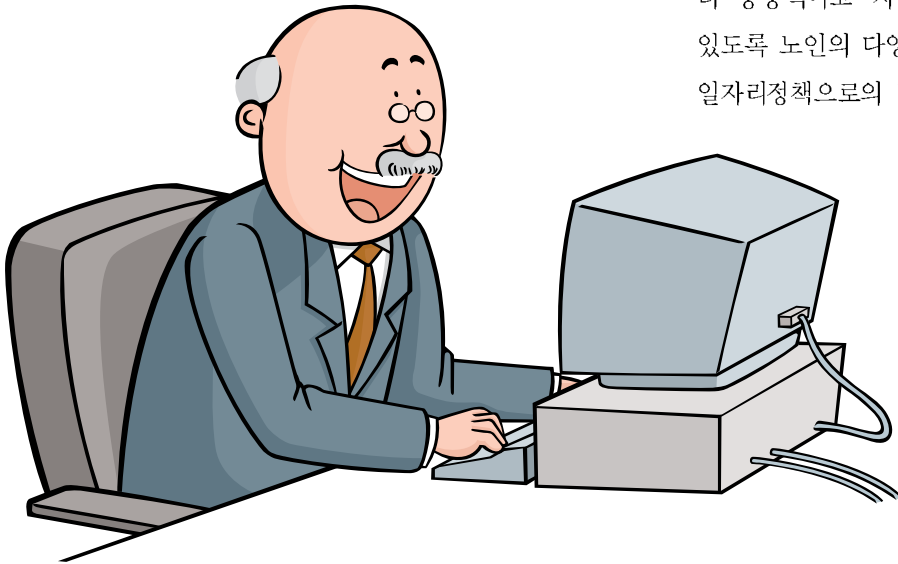
둘째로 노인의 능력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의 유형(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이 매우 단순하고, 임금도 평균 20만원 정도가 지급되며, 노동시간은 주3-4회 반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간이 년 중 6개월 이내로 매우 임시적인 일자리라는 것이다.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각의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건강적, 시간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방향은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젊은 층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수용하여 사회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고용주에게 생산성이 낮은 노인채용을 권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노인일자리는 노동시장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젊은 층과 경쟁하게 하기보다는 고유한 영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을 보호하는 차원의 정책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어감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고령자도 예외가 아닌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

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노동력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의 저성장과 고령자의 증가에 의한 정부의 재정위기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이고, 개인적으로는 노인이 일하게 됨으로써 잃었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인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우리사회의 기본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여, 노인에 대한 '노인관(老人觀)'을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부터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정책으로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열었다’



“2005년 한 해는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연 한 해였습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5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5년 한 해를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여성가족부 출범, 호주제 폐지로 인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보육재정 확대를 통한 공보육화 추진, 국가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확산 등을 올해의 주요 정책 성과로 꼽았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 한해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의 탄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 출범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그동안 관련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가족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 출범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변화, 그리고 가족간호, 노인부양 등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 가족위기 증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가족정책전담기구로 출범하면서 가족정책국을 신설하고,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전국 16개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로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여성계의 50년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는 올 3월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여성가족부 주도로 범정부적 ‘호주제특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여성중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08년 시행을 위한 새로운 신분제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올해 보육정책은 저소득층·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확대를 비롯해 민간보육시설의 정부지원, 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등 공보육화와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등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354명을 증원하여 보육행정 수요증가에 맞는 실무인력을 확충하였다.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취업기회 확대

올해 추진된 여성일자리 확대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 중소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일반적인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사업과 달리 여성가족부 사업은 직업훈련 후 취업연계까지 실시함으로써 여성인적자원개발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고학력 청년여성의 일대일 집중취업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대생의 안정적 취업 보장처로서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정립하였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우리나라의 가족의 형태가 이혼가족,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한부모가족, 조손(祖孫)가족 등 매우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족들이 실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이에 기초한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와 함께 다양한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였다.

성매매 방지 모범국가 선정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및 입소시설 '그룹 홈' 화, 집결지 시범사업 확대 실시,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개소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내실화하였다.

이와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존 스킵' 운영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가해자 교정 및 재범방지도 기여하였다.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체계 구축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상담·의료·수사단계를 거치면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 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이달 말까지 전국 7곳 병원에 설치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경찰청·병원 등과 3자 공동협약을 체결한다(12.22).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여성의 치료와 법률적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지방 공사의료원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무료 진료·법률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국가정책에 양성평등관점 확산

2004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수형자 정예훈련과정 등의 성별영향평가 사업들이 올해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 57개 전 기관 중 55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80개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06년 예산편성지침에 예산 편성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통계청과 남녀별 국가통계 구축 MOU 체결 등 양성평등관점이 여성정책에서 일반정책으로 까지 확대되는 한해로 평가된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여성가족부는 올해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법 등 개정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하였다.

우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인증제 도입과 함께 그동안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던 것을 장애인 부모에게까지 확대하여 장애인 부모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인정,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화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지원시설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9단계 급상승

여성의 대표성을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가 작년 68위에서 금년에 59위로 급상승하였다. 이는 국회의원 비율(5.9%→13%), 행정관리직(5%→6%), 전문기술직(34%→39%), 남녀소득비(0.46→0.48) 등 각 분야에서 여성권한척도의 구성요소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여성권한척도의 순위가 계속 낮아지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상승하였다.

성과지향적 조직전환으로 조직역량 강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민간기업의 성과경쟁체제를 도입한 팀제개편, 직원교육 강화, 조직혁신선도자그룹 ‘한계돌파팀’ 운영 등을 통해 조직혁신을 주도했다.

BSC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업무 실적을 조직의 목표달성 및 생산성 향상과 연계하였고, ‘한계돌파팀’을 운영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혁신을 이끌었으며, 업무효율성 제고와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직원 1인당 교육시간을 연간 105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올 연말까지 팀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부서 간 분산된 기능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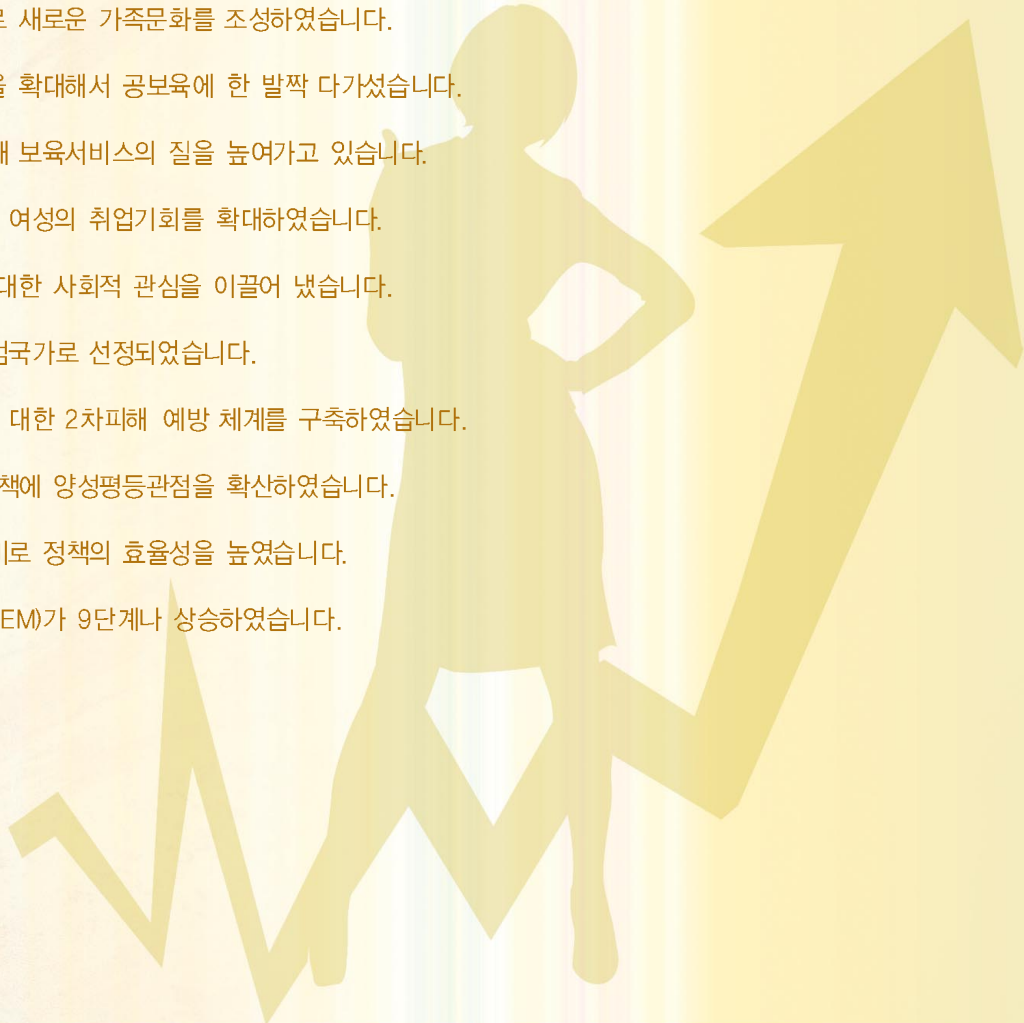
* BSC(Balanced Scorecard)체계 : 통합성과관리체계

06년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해’

한편, 여성가족부는 '06년을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해’ 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과 가족, 여성인력개발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05년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성과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남녀동반자 시대 개막의 해’

- ① ‘여성가족부’ 출범으로 통합적 가족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② ‘호주제 폐지’ 로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 ③ 보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공보육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 ④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⑤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 ⑦ 성매매방지 모범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 ⑧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2차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⑨ 국가의 모든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확산하였습니다.
- ⑩ 법·제도의 정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⑪ 여성권한척도(GEM)가 9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연구자 : 정책연구실 최은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0~5세까지 보육대상 아동은 2004년 12월 기준 330만명이며 보육시설이용율은 26.9%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0~2세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율 17.8%와 3~5세인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율 34.3%로 계산한 수치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13만명의 보육대상 아동 중 영아 18.0%, 유아 39.9%의 이용율로 전체 30.3%를 나타내어 전국수준보다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보육환경의 변화와 보육의 사회화 욕구의 증대에 따라 보육수요에 따른 지역적 균형 및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보육사업은 1920년대 탁아프로그램의 개발로 시작, 196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구빈적 성격이 아닌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며,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중시하는 보육사업으로 발전하였음. 보육담당업무는 1991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2004년 6월 12일을 기점으로 여성부로 이관, 2005년 6월 23일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보육담당업무가 확대됨.

■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노동력 활용과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확대될 추세이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유래없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70년 4.53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생아 수는 1995년 71만6천명에 비해 2002년에는 49만4천으로 31%나 감소(통계청, 2004)되었음. 이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GDP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인구고령화를 가속시킴으로써 의료비 및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셋째, 지속적인 산업화·도시화·서구화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로 핵가족이 보편화되었고, 가족해체 증가 등으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당면시되었던 가족내 자녀양육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영유아기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이로 인한 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증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 정책제안

서비스 욕구가 증대됨.

이에 본 연구에는 다음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 충청남도 보육사업 및 보육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함.
- 보육시설 이용 실태에 관한 분석에서 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실태와 보육시설확충에 관한 수요분석, 보육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에서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의견, 보육 인력 관리문제, 보육정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충청남도 보육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

2. 연구방법 및 용어의 정의

본 연구는 문헌연구, 관련 통계분석, 보육정책 워크숍 개최, 설문조사 그리고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문헌연구는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및 충남보육정보센터의 보육관련 통계 및 자료를 분석하여 보육정책 및 보육시설 현황을 파악함.
-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보육정책방향과 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함.
-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 12월 31일 기준 충청남도 보육시설의 전수인 1,074개의 보육시설 중 반수인 537개소를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골고루 분포되도록 시군별 시설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음. 따라서 보육시설장용, 보육교사용, 그리고 학부모용 각각 537부를 발송하여 총 1,611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시설장 302부, 보육교사 300부 그리고 학부모 302부 총 90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56.1%의 회수율이 나타남.
- 보육관련 교수와 시설운영 시설장의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제언을 구성함.
- 본 연구의 보육시설 분류기준 및 용어는 「2005년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지역별 분류는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3. 충청남도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충남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총 1,074개소이며, 민간보육시설이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이 32.9% 그리고 국·공립시설이 2.9%이다. 보육교사 수는 총 3,200명이다.

<표III-3>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법인	법인의외	개인		
시설수 (%)	1,074 (100)	31 (2.9)	116 (10.8)	96 (8.9)	464 (43.2)	14 (1.3)	353 (32.9)
종사자 수 (보육교사)	3,200	162	1,540	414	745	44	295

※ 출처 : 여성부 보육기획과 자료(2004. 12. 31), 충남보육통계(2004. 12. 31)

충남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의 현원은 전체 40,498명이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에서 5.2%, 민간보육시설에서 84.3%를 보육하고 있다. 보육시설 유형별 정원충족율은 보육아동 현원과는 달리 국·공립보육시설이 91.2%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법인의외 시설 88.7%, 법인시설 85.1%, 민간개인시설 84.0% 순으로 나타났다.

<표III-4> 보육시설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법인	법인의외	개인			
아동수 (%)	정원	48,838 (100)	2,306 (4.7)	11,511 (23.6)	5,214 (10.7)	23,493 (48.1)	754 (1.5)	5,560 (11.4)
	현원	40,498 (100)	2,102 (5.2)	9,794 (24.2)	4,626 (11.4)	19,737 (48.7)	497 (1.2)	3,742 (9.2)
	정원 충족율	82.9	91.2	85.1	88.7	84.0	65.9	67.3
시설당 아동수	38	68	84	48	43	36	11	

※ 출처 : 여성부 보육기획과 자료(2004. 12. 31), 충남보육통계(2004. 12. 31)

충남의 전체 보육 정원충족율은 83.0%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가 84.2%로 농어촌보다 보육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세 이하의 영아는 68.5%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촌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62.5%만을 보육하고 있다. 이에 반해 3~5세 유아는 89.1%로 농어촌이 중소도시보다 0.4% 더 높게 나타났다.

<표III-5> 지역 및 보육아동 연령별 정원충족율

(단위 : 개소, 명, %)

		전 체	중소도시	농어촌
전 체	정원	48,838	16,284	32,554
	현원	40,531	13,711	26,820
	정원충족율	83.0	84.2	82.4
2세이하	정원	15,057	5,877	9,180
	현원	10,314	4,577	5,737
	정원충족율	68.5	77.9	62.5
3 - 5세	정원	32,982	10,147	22,835
	현원	29,385	8,955	20,430
	정원충족율	89.1	88.3	89.5
6세 이상	정원	799	260	539
	현원	832	179	653
	정원충족율	104.1	68.8	121.2

※ 출처 : 2004 충남보육통계(2004. 12. 31) 재구성
 충남보육통계 2001년 4/4분기 자료, 2004년 4/4분기 자료 비교(방과후 보육 포함)

충남의 특수보육 현황으로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34개소로 1,059명을 보육하고 있고,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천안시 2개소, 공주시 1개소 그리고 홍성군에 1개소로 나타났다. 방과 후 보육시설은 총 55개소에서 80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는 35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아동정원은 548명에 아동현원은 188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35%에 불과하다.

<표III-6> 충남 특수보육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충남 특수보육							정원 충족율
		계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법인	법인외	개인			
영 아 전 담	시설수	34	-	7	6	18	-	3	83.5
	정원	1,269		364	240	605		60	
	현원	1,059	-	278	186	535	-	60	
장애아전담	시설수	4	2	1	-	1	-	-	85.8
	정원	134	65	39		30			
	현원	115	53	32	-	30	-	-	

장애아통합	시설수	26	2	6	1	14	1	2	7.3
	정원	1,557	149	407	39	845	79	38	
	현원	114	12	38	3	51	4	6	
방과후 전담	시설수	3	-	1	-	1	-	4	120.3
	정원	135	-	44	-	21	-	70	
	현원	166	-	41	-	10	-	65	
방과후 혼합	시설수	49	-	12	1	32	-	4	17.5
	정원	3,635	-	1232	109	2,233	-	61	
	현원	636	-	231	12	374	-	19	
시간연장형	시설수	35	1	3	1	10	-	20	34.3
	정원	548	10	15	5	261	-	257	
	현원	188	16	15	5	74	-	78	
휴일	시설수	16	1	2	1	3	-	9	30.6
	정원	245	10	30	5	59	-	141	
	현원	75	9	20	5	11	-	30	

※ 출처 : 충남보육통계(2004. 12. 31)

충남의 전체 209개 지역 중 동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반면, 45개의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I-7> 충남 보육시설 미설치 현황

(단위 : 개)

지역	구분	보육시설 미설치 현황		
		전체 읍면동	보육시설 미설치	정부지원시설 미설치
전체		209	45	71
중소도시(동)		39	-	10
농어촌(읍,면)		170	45	61

※ 출처 : 충남보육통계(2004. 12. 31)

4.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가. 보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다양화

■ 현황 및 문제점

- 연령별 보육시설의 배치 불균형으로 접근성이 떨어짐.
 - 보육시설 환경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은 집과의 거리로 나타남.

* 정책제안

-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영아 17.9%, 유아 39.9%로 전체 30.9%임.
- 보육공급률은 영아 26.3%, 유아 44.87%로 전체 36.7%임.
-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시간제보육 등 수요는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 시설은 미비.
- 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우선설치 보육시설로 읍·면지역은 영아보육시설 30.2%, 동지역은 장애아보육시설 27.8%, 시설장은 읍·면지역은 방과후 보육시설 28.7%, 동지역은 장애아보육시설 27.0%를 요구함
- 농어촌 아동을 위한 정책 중 차별된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15.3%) 순으로 나타남.
- 장애아를 위한 정책 중 장애아 교사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설치(39.3%)순으로 나타남.
-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낮은 설치 비율은 현재 2.8% 수준에 불과하며, 법인 및 법인외 보육시설을 포함하여도 31.9%임. 보육아동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4.9%, 법인 및 법인외 보육시설 이용 아동 33.6%로 총 38.5%임.
- 우선설치 시설로 61.5%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함.
- 보육시설 환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시설은 있지만 시설 및 환경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가 33.3%로 나타남
-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부모교육 및 운영참여’, ‘교육프로그램’ 순으로 불만족하다고 나타남.
-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의 미흡
-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시설은 85.3%, 가정보육시설은 75.4%로 나타남.
- 교통안전 훈련 연4.1회, 소방훈련 4.8회, 기타훈련 및 교육 2.7회로 나타남.
- 물리적 환경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은 보육실 30.6%,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육실 25.6%로 나타남.
- 시설장 40.1%, 보육교사 33.3%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함.
- ‘자료실 운영 및 교구·기자재 대여’에 대해 요구함.

■ 추진방향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보육화 추진
- 아동의 심신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과 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나. 보육비용 지원의 다각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육료 및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
 - 지역별 읍·면지역은 62%, 동지역은 52.8%가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함.
 -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중 양육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57.3%가 '보육비용 부담'을 지적함.
 - 읍·면지역의 10.7%는 '매우 부담된다'로 나타남.
 - 기타 보육비용으로 5만원 미만부터 30만원 이상까지 부담하고 있음.
- 육아지원 정책 홍보부족으로 정책인지도 및 신뢰감 부족
 - 보육료지원 및 제도에 관한 인식도 조사결과 항목에 따라 5.8~66.7%는 모른다고 응답함.

■ 추진방향

- 소득별·가구특성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및 차별화
- 보육료 아동별 지원 확대
-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다. 보육인력의 체계적 관리 및 처우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장, 교사 등의 경력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경력인정이나 호봉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 규정 준수를 통한 보육교사의 복리후생 확보
 - 보육교사가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월 평균 급여수준은 100만원 이하가 39.5%,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가 51.0%로 나타남.
 - 가정보육시설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가 80%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시설이 19.6%
 - 공식적 휴가가 없다는 시설의 비율은 2.8%
 - 출산휴가시 본인이 대체교사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13.8%, 본인사퇴는 6.1%

■ 추진방향

- 보육교사, 가정보육도우미 등 보육관련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보육종사자 처우 및 전문성 제고

라. 보육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책제안

-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행정대상자가 증가하고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으로 종사자 경력관리 등 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업무 담당 인력은 전체공무원 대비 0.3%임.
 - 보육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보육담당인력 확충이 시급
 - 보육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잦은 보직이동을 억제.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 주로 이용하는 보육정보센터로 중앙 47.7%, 충남 41.3%로 나타남.
 - 학부모의 27.7%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필요성을 제시.
 -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장 40.1%, 보육교사 33.3%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응답함.
- 추진방향
- 보육정보센터, 인성학습원, 사회복지관 등 보육관련 기관의 활성화
 - 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강화
 - 정보의 네트워크화 등 행정적 지원체계 및 제도적 장치 구축

VI. 결론

학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과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보육시설 및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조건과 환경이 열악한 것도 보육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또한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보육을 지지하기 위해 부모협동보육시설 지원, 가정양육지원센터 설립, 가정보육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그리고 보육도우미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공보육화를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구성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물리적·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의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지역노인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의 누구라도 보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출산의 기쁨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오점汚點

- 영화 연계하여 읽어보기

이춘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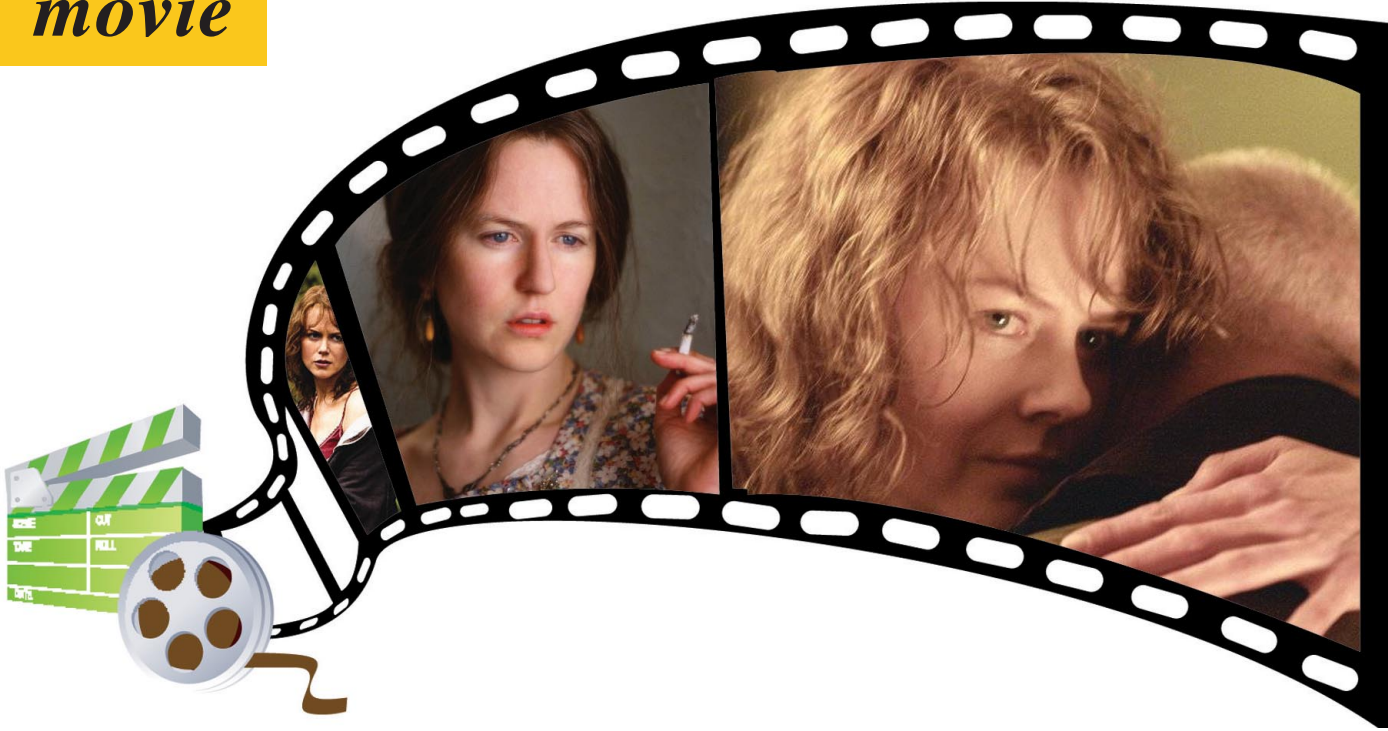


여성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영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요청받고는 그동안 보았던 영화들을 떠올리며 비디오가게에서 몇 개를 빌려와 다시 보기 시작하였다. 여러 개를 보면서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딱히 영상으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이미지 조합이 잘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휴먼 스테인>이라는 영화를 빌려보다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휴먼 스테인>이란 영화제목을 번역하자면 '인간의 오점(汚點)'이 됨을 영화가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되었다. 안소니 홉킨스가 출연하는 영화라고 하니까 무작정 보게 된 것인데, '인간의 오점'이라는 단어를 대화 자막을 통해 읽는 순간 영화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나 할까.

인간의 원죄 같은 것, 인간의 지워지지 않는 얼룩, 인간의 오점, 참 제목이 그별듯하였고, 영화가 좋았다. 다시 보았다. 인간의 오점을 주제로 연계하여 볼 수 있는 영상강의용 영화를 세 개 선택하였다. 내용도 좋고 작품으로도 좋다고 여겨지는 <휴먼 스테인>, <올드 보이>, <디 아워스>가 그것이다.





휴먼 스테인 - 1979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개념이 무너지는 과정을 잘 그려냈던 로버트 벤튼 감독의 2003년 작품

올드 보이 - <JSA공동경비구역>으로 유명해진 박찬욱 감독의 2003년 작품, 2003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디 아워스 - 시대를 달리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 여성의 삶이 교차되면서 사회로 향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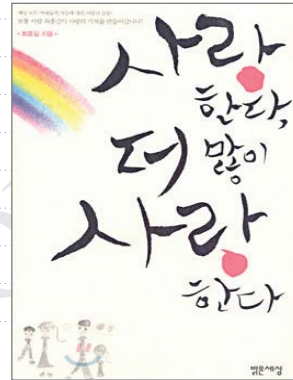
우연한 기회에 강의요청으로 주제를 연상하며 몇 개를 연계하여 영화를 보면서 나 스스로 놀랐다. 영화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시간 강의용으로 설정하면서 보여줄 영상을 추려내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 그리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머릿속에서 편집되는 과정에서 영화들은 킬링타임용이 아닌 나만의 또 하나의 창작품으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독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렇게 세 영화를 선택하여 시선을 집중하여 봄으로써 인간의 문제, 그 가운데 영원한 인간의 숙제인 '인간의 오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어떻게 피폐해지고 있었는지. 근친상간, 누이의 죽음의 근간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전인생을 걸고 복수리는 칼날위에 잔인한 게임을 하는 인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자신에게 날개를 달고자 했던 여성들이 시대적으로 겪었던 불행이 이 영화들을 통해 읽어볼 수 있다.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

저자 : 최종길

출판사 : 밝은 세상, 가격 : 9,500원



세상 모든 아내들의 가슴에 내린 사랑의 감동!

사랑하는 사람의 병상을 지키는 일이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더구나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그 대상이라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하기에 읽기가 두려울 만큼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최종길 씨가 풀어놓는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문득 암담한 슬픔보다는 희망의 속삭임이 가슴을 가득 채워오는 듯한 느낌에 젖어들게 된다.

최종길 씨는 벌써 3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는 아내의 병상을 지켜오고 있다.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떨 만큼 자랐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우두커니 누운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뇌출혈로 쓰러진 그의 아내 김혜영 씨는 두개골을 드러내는 감압수술을 포함해 네 번의 수술을 받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 꿈을 물으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라고 했던 김혜영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의식 없는 몸으로 둘째 태우이를 출산한다. 제왕절개는 물론 약물 한 방울, 주사 한 대의 시술 없는 자연분만이었다. 임신 7개월째였고, 사람이 사랑이 기적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최종길 씨는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지도, 돈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한 남자 최종길 씨는 그의 앞에 가로놓인 현실의 장벽이 높을수록 점점 더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빠 밑에서 자라며 세상의 온갖 신고를 경험하고 그를 향해 걸어온 아내였기에 평생 그녀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고,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최종길 씨에게 이 암담한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의식 없는 아내를 돌보며 끊임없이 사랑의 말을 속삭이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아마도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내와 보낸 추억의 시간을 반추하고, 그

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에너지를 얻는다.

엄마의 존재를 모르고 자란 태웅이, 함께 한 기억은 잊어도 가끔 엄마를 그리워하는 태란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누나, 형 그리고 어머니……. 이 책에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이는 그의 어머니다. 아들의 아픔을 나눠 가지면서도 때로는 대책 없이 막막한 현실에 화를 내고 푸념도 한다. 그러면서도 머느리를 향해 “네가 일어설 수 있다면 10년, 20년이라도 기다리겠다”고 토로하는 그녀는 다름 아닌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이다. 이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며 새 희망을 품어가는 모습은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세태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이혼율이 30퍼센트를 넘어서는 우리시대에 진정한 부부애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이며, 사랑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을 찌르는 뼈아픈 일침이다. 또한 이 책은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늘 존재하고 있음을 넌지시 일깨우고 있다.

보통 사람 최종길이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 간다.

“저야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30년간 열었던 식당을 접으며 친구 분들과 등산이나 다니겠다고 어머니에게 병상의 아내와 젖먹이를 돌보게 한 일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남다른 효심을 가진 최종길 씨는 어머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 술한 고생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였다. 그나마 한푼두푼 어렵게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모두 써야만 했다. 그렇지만 애써 웃음을 잃지 않는 어머니를 보며 최종길 씨는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다짐하며 산다.

세상에 나올 당시 812그램의 미숙아에 불과했던 태웅이는 생존을 위한 험난한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했다. 최종길 씨는 “신체의 일부 기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 조경순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인지 태웅이는 밝은 얼굴의 건강한 아이로 자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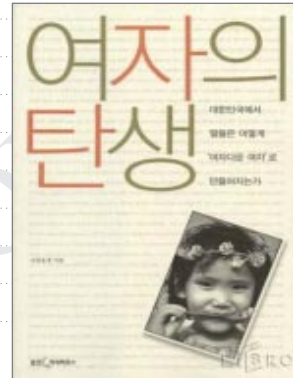
조경순 씨는 환자를 씻기고 미음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다. 환자를 위해서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자칫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의식이 돌아온다 해도 20퍼센트의 기능만이 회복 가능한 김혜영 씨. 그러나 최종길 씨 가족은 그 20퍼센트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으리라는 걸 알지만 온 가족이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바탕 위에서라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활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최종길 씨 가족이 우리에게 가만히 전해주는 교훈은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의 소중함’ 바로 그것이다.

여자의 탄생

저자 : 나임윤경,

출판사 : 웅진씹크빅, 정가 : 11,000원



★ 대한민국 여자들은 왜 남자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할까?

대한민국에 사는 여자들은 고민이 많다. 말로는 여성과 남성이 날로 평등해져 간다는데 여자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이 하지 않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여자의 탄생》은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여자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의 저자 나임윤경은 '왜 이렇게 되었지?'라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대체 부모님은 자신을 어떻게 키웠으며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랐고,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며, 선생님들은 여자인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리고 세상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아동기부터 아홉마가 된 지금까지 여성을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지를 재구성하여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 인지를 설명하는 작업,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는 여성들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작업 끝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책 《여자의 탄생》이다.

★ 여자로 태어나는가, 여자로 만들어지는가

여자는 분홍색을 좋아하고 남자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여자는 잘 울고 남자는 용감하다, 여자는 국어를 잘하고 남자는 수학을 잘한다, 여자는 운전을 못하고 남자는 요리를 못한다, 여자는 성욕을 참을 수 있지만 남자는 성욕을 참을 수 없다,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고 남자는 목표 지향적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로 지칭되듯이 여자와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행성의 사람들처럼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자라왔던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지 태어나면서 다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다.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이 그들의 신념과 이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과 현상에 대한 의미를 구성 혹은 만들어간다고 보는 이론인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를 토대로하여 이 책을 써나갔다. 즉, 여자의 자궁과 남자의 고환 등 생물학적인 측면을 제외한 특징들은 모두가부장적 한국 사회와 같은 일정 상황에 있는 여성과 남성을 위해 '만들어진 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가지고 있도록 기대되는 여성적 특징과 남성이 가지고 있도록 기대되는 남성적인 특징들을 미리 구분해놓고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가지도록 키워지는 것이 선천적인 특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여자아이들은 붉은색을, 남자아이들은 푸른색을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몸에 흐르는 호르몬이 달라서 서로 좋아하는 취향의 색이 다른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여아는 붉은색을 남아는 푸른색을 좋아한다고 어려서부터 성별에 맞는 색깔을 학습했기 때문이지 애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 동양철학에서는 붉은색은 양기라 하여 남성으로, 파란색을 음기라 하여 여성화 했었고, 서양의 문화에서는 붉은색은 여성으로 푸른색은 남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 아이들이 여자는 붉은색, 남자는 푸른색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보다는 그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갖아야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과 같은 특정한 틀을 만들어 여자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 남자는 모름지기 저래야 한다는 것을 강요해왔던 것이 아닐까. 저자는 이런 이론을 토대로 어린 시절부터 아줌마가 된 지금까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다양한 심리학 실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로 키워지는가'를 차근차근 밝혀낸다.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뒤집어 여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의 시선이 거북하지 않은 것은 이런 과정이 여성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제대로 설명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파악해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를 긍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소리 클럽

* 충남 지역 여성소모임을 찾아서

이영세 본원 정책연구실장

소모임을 시작하게 된 배경

연기군 조치원 소리클럽은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조치원 YWCA에서 민요부르기 강습을 하였는데 판소리와 민요를 5개월간 수료한 이수자들이 후속모임으로 만든 것이다. 11명이 수료하였으나 빠진 사람이 있었고 2기 출신 4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식으로 모여져 현재 회원은 총 17명이다. 소리클럽은 '우리 소리, 즉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고 보급하는 모임'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지역사회의 행사에 공연도 한다. 소리연습과 공연활동은 여가선용과 소질개발, 사회참여, 경력개발의 습득 기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모임이 속해 있는 기관

소리클럽의 후속활동을 지원하는 조치원 YWCA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체를 지향한다. 여성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고유의 자질을 발휘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의 사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리클럽에 대한 지원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치원 YWCA의 회장인 임영이씨는 소리클럽을 실제로 지도하고 모든 활동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소리클럽의 연습실을 제공하고 모임과 행사를 계획, 추진한다. YWCA의 행사가 있을 때는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1. 조직

연습과 지도는 주로 선생님이 계획하고 총무는 사무와 재정을 담당한다. 그 외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공동협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2. 활동내용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민요부르기를 통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공연을 통해 우리 국악을 보급하고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모임이 결성된 이후 매주 한번씩 모이는데 지금은 목요일 오전에 모이고 있다. 전에는 YWCA 지하 연습실에 모여 판소리와 민요를 연습하였는데 올 여름에 연기 문화원으로 옮겼다. 문화원에서는 민요방을 제공하여 여기서 연습을 한다. 대부분의 국악관련 소모임들이 연습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고 소리의 큰 선생님이 인정받고 있는 임영이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모임이 운영되는 편이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모임을 가지지만 발표나 공연이 있을 때면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위하여 매일 모이기도 한다. 4년을 넘다 보니 보이지 않지만 실력들이 늘어나 경기 민요반과 남도 민요반으로 구분이 되었다. 경기민요반은 7명 정도, 남도민요반은 5명정도가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2002년 7월 10일에 조치원 YWCA 회원대회 행사에 출연한 것을 시작으로 평균 한달에 한두개의 행사가 있다. 충남지역이나 군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알차게 하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우리 소리를 전하고 즐겁게 만든다.

노인병원, 지역축제, 사회복지 시설의 위문잔치에서 부를 때면 항상 찾아간다. 작년 10월부터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테마로 면마다 찾아가서 전문자원봉사단 이동봉사활동을 하는데 참 좋아해서서 회원 모두 보람을 느낀다.

3. 참여자

소모임의 평균적인 참여자 수는 7-8명 정도이다. 회원구성상의 특징을 보면 30대, 40대의 연령대이다. 모든 여성, 주부모임이 그렇듯이 아침에 아이들과 남편을 보내고 돌아오기 전까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집안일에 지장은 그다지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정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잘하고 남편들이 잘 배려해 주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 모든 회원들은 한결같이 남편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고 한다. 이런 남편-아내의 관계는 상당히 평등하게 보인다. 가정생활은 전형적인 성 역할 분업에 기초하고 있으나 아내의 사회적 활동, 그것도 공연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예술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지지는 국악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일제 이후 천시를 받았던 우리 음악에 대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인식을 넓혀가는 대중화의 성과로 보인다.

4. 리더

실제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임영이 선생님은 우리 음악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의사이신 아버지는 임영이씨가 어렸을 적부터 가야금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서 배우게 하셨다. 여러 형제 중 가야금을 가장 잘 배우고 타셨지만 결혼을 하면서 국악 배우기를 중단하였다. 그러다가 서른 여덟살 되던 어느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 듣게 된 우리 소리에 깨우치고 다시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20년을 꾸준히 연마한 후 2002년에는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다.

현재는 연기군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계신다. 선생님은 늘 더불어 사는 삶, 그림자를 드리우는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살면서 이 모임을 지도하신다.

소모임의 영향

처음에 YWCA의 회원으로서, 국악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막연히 참여했던 회원들은 국악을 접하고 소모임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 공연을 해 오는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민요부르기반을 수료한 후 심화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우리의 민요와 판소리를 더욱 이해하고 부르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다. 소리를 하기 전과 한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소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기는 했지만 남도민요가 무엇이고 서도민요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노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많이 배운다는데 그런점에서 참 다행이다. 자신의 목소리에 이런 잠재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일생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소리를 통해 자신과 가족만이 아닌 지역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흥겨워지고 가슴이 붕

클해지기도 한다. 소리는 회원들과 지역사회를 연결시켜 주고 반복되는 공연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높여나가고 있다. 회원들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 격려를 통하여 구성원 개개인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회원들의 일상의 경험과 개인적 정보 등을 중요한 학습자원으로 삼는 가운데 협동인 만남을 지속할 수 있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해 가고 있다.

회원 이정옥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약 15년간 일을 했다. 일을 하면서도 한국사회의 장남 며느리의 역할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마음앓이를 많이 했다. 나중에는 편두통으로 머리와 눈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이리다가는 안되겠다 싶어 마음먹고 여행을 떠나면 그때 뿐,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두통에 시달렸다. 어릴 적에 조상현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기 위해 장구와 가야금 병창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우리 가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을 그만둔 지는 4년이 되었다. 당장 일을 그만 두니까 경제적 형편은 어렵지만 소리에 눈을 뜨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지역에서 공연도 하게 되어 오히려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다고 한다. 자신에게 있던 예술적인 끼를 모르고 그냥 지냈다면 아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예전보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다.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산 등 흥미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강좌나 모임들이 읍지역만 해도 꽤 많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주부들의 잠재되어 있는 예술적인 끼를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공간과 기회는 매우 드물었다. '소리'는 단순히 여가를 활용하여 취미생활의 수준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소리'는 내면에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분출해 주었고 사회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소리클럽이 조치원YWCA의 지원으로 조직되었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반대로 조치원YWCA도 소리클럽 여성 소모임 활동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YWCA가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체를 지향하며 여성 각자가 자신의 충분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본인 고유의 자질을 발휘하여, 삶의 질이 향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속 소모임으로서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관의 사명인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리클럽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 소모임 활동 지원을 통하여 YWCA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간접적으로 기관을 홍보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통로가 되었다.

평가 및 전망

소리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 몇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리더의 역할이다. 이 모임의 리더인 임영이 선생님은 모임 형성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리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둘째, 모임의 구성원들이 조치원YWCA의 회원이자 조직원들이며 조치원 YWCA는 소리클럽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소모임 소리클럽의 운영 및 활성화를 기관 사업의 일부로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기관차원에서 2001년부터 민요부르기반 강좌를 위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강사지원, 공연안내 및 알선 등을 수행해 왔다. 비정기적이기는 하지만 Y행사에 참여하고 재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연기문화원에서 민요방이라는 연습실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모임의 활동은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임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하면 실질적 리더인 임영이 선생님의 지원을 벗어나서도 회원들이 자생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조치원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동이 잦아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가까운 지역에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되었다. 지역인구가 50만 이상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새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문화적 잠재력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 『11월의 여성자원봉사왕』 박한숙

최선미 충남자원활동센터

“사람은 화나 복은 주는 만큼 되돌려 받는 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겐 언제나 행복이 두배로 돌아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홍성군 여성자원활동센터 박한숙(49세<사진>)씨는 자원봉사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충청남도는 “11월의 여성자원봉사왕”으로 박한숙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씨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 셋이 금마삼총사라는 별명으로 동네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청소, 도배 등을 해오다가 점점 회원수도 늘고 현재에는 자원봉사 전문교육 받고 이·미용, 수지침, 건강마사지 활동을 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한 달간 ▲무료경로식당에서 음식조리 및 배식활동 ▲노인복지시설·육아시설·노인종합복지관 건강댄스지도, 수지침, 김장담그기 ▲무의탁노인 가정방문 재가봉사 및 이·미용 ▲시각장애인 걷기대회, 우리쌀 음식 시식회 등 급수봉사 총 23회에 걸쳐 200시간 동안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 다음은 11월의 자원봉사왕으로 선정되신 홍성군 여성자원활동센터 박한숙씨의 활동소감입니다.

- 편집자 -

| 소감 및 소개



하늘에서 하얀 눈이 쌀처럼 쏟아져 내려 마음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듯이 마음만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49세의 박한숙입니다.

2005년 11월의 자원봉사왕으로 선정이 되어 영광이 아닐 수 없네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삶의 활력을 찾으며 맡은 바 최선을 다 할 뿐인데 밖으로 내 보여지는 듯하여 많이 쑥스럽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일과 가축도 키워야 하고 아들 뒷바라지와 시부모님도 모시고 해서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할 때 집안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야 할 일이 많으면서 어떻게 자원봉사활동 할 시간이 있겠냐며 몸이 열개라도 남이나

질 않겠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당당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니까 그제야 남편도 많은 부분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만약에 집안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면 아마도 주위에서 질타가 더 많았겠지요.

자기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신경 쓴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우리 동네에서도 억척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부분 이해해 주십니다.

| 자원봉사 활동의 계기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홀로 식사도 못하고 청소는 물론 목욕도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좋을 듯 하여 1991년에 면사무소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마음 맞는 젊은 사람 셋이서 자원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금마삼총사라는 별명이 붙어 유명해졌습니다. 금마삼총사는 동네 어르신 생일상 차려드리기, 청소, 도배 등을 해오다가 점점 회원수도 늘었습니다.

주로 노력봉사만 했는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전문교육이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하여 열심히 배웠습니다.

5~6년 전에 이·미용을 배워 한달에 한번 시설에서 어르신들께 해드리는데 전문미용사 만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지침과 건강 마사지도 배워서 독거노인들이나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해 드릴 때면 몸이 가뿐하고 좋아지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해드립니다. 지금은 밖에 나가면 제가 먼저 알아보지 못해도 먼저 알아보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활동

몇 십 년을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 반찬을 매주 갖다 드리는데, 저희가 방문을 할 때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십니다. 혼자 계셔서 적적하셨는지 잠깐 앉았다가 가면 벌써 가느냐고 좀더 앉아 있다가 가라고 말씀씀을 하십니다.

한번은 반찬을 갖다 드리러 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은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
요. “할머니 왜 음식을 안 드셨어요?” 걱정스레 묻자

“시장이 반찬이 아니라 시장이 사람인데 누구하나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자주 안 먹게 돼”
라는 말씀에 할머니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마도 사람의 정이었을 텐데 너무 소홀히 한
것만 같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는 자주 찾아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청소와 말벗도 자주 해 드리니 할머니의 얼굴에 웃
음이 많아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천안에서 일을 하느라 자주 오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딸이 찾아와서 우리 손을 잡으면서 자식인 딸보다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어 딸
보다 낫다며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내손을 잡으시며 우시더군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찾아뵙지만 해가 바뀔수록 할머니는 몸도 정신도 많이 쇠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장수원이라는 곳으로 모셔가게 되었습니다.

이·미용이나 목욕봉사를 위해 장수원을 찾아 가면 할머니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 하십니다. 그러
던 할머니님이 건강이 나빠져 끝내는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아마도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보람을 느꼈을 때

사람은 화나 복이나 주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
겐 언제나 행복이 두 배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챙겨 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
르고 착실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고맙고 또 하고자 하는 일 순탄하게 잘 돌아가는 것은 분명 내가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우리가 찾아 볼 때면 이산가족 상봉 하듯이 안아주는 어르신들, 손 잡아
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봉사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사계절중 힘든 계절은 여름과 겨울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매주 이웃을 돌봐야 하는데 여름에 장대비가 쏟아 질 때면 옷이 흠뻑 젖어 집에 들어오면 물에 젖은 솜방치처럼 축 늘어져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런 날은 몸이 2~3배 더 힘들어 집안 청소를 소홀히 할 때도 있지요.

겨울철에 따뜻한 방안에 있다가 자원봉사활동을 나가려고 하면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만, 이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반찬배달을 가는 날이면 어르신들께서 차가운 바람 앞에 몸을 기대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차마 어르신들 때문에 늦장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는 그 말이 얼어붙은 몸을 살살 녹여주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늘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시간을 쪼개 더 많은 시간을 어르신들과 함께 갖고 앞으로도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힘 닿는 데까지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충남여성자원봉사자 '어려운 이웃돕기'에 팔 걷어

- '김장 담가주기' 등 다양한 활동 펼쳐 -

충청남도가 12월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12월4일부터 10일까지 도차체적으로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전개 했다.

자원봉사자 연인원 1,6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연말 봉사활동에는 여성자원봉사 전문교육 수료자들이 대거 참여해 수지침, 풍선험끼 만들기, 어려운 이웃 밑반찬 김장나누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군별로는 ▲사랑의 요술 손 활동으로 수지

침, 건강마사지, 이·미용 봉사 ▲밑반찬배달과 김장 담가드리기(배추 27,710포기) ▲어르신 나들이 활동으로 효도관광, 목욕시켜드리기 ▲장애아동·노인들의 놀이지도 및 공연(풍선 만들기, 레크리에이션, 마술) ▲어려운가정 방문 재가봉사 및 위문(청소, 빨래, 생필품지원) ▲지역환경활동(캠페인, 쓰레기수거) ▲행복한가정 가꾸기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여성 안내 등 7개 프로그램 등이 펼쳐졌다.

'충남여성정치대학' 개설 운영

- 내년 선거대비 사전 훈련 성격 -

충청남도가 2006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대비해 9월5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공주시 반포면 소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내 여성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충남 여성정치대학'을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2004년도 정당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 정치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전훈련을 실시하여 여성후보자들

의 자질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여성정치대학에서 참가자들은 기본 40시간과 자체 10시간 등 총 50시간동안 현직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함께 지방의원·대학교수·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지방의회외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와 비전 수립/새로운 리더십 ▲여성이 바꾸는 지방정치 ▲의원이 되려면?/카네기 리더십 ▲지역을 바꾼 국내외 사례 ▲승

리로 이끄는 선거운동 전략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으로 개인부담이

없이 전액 무료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8월말까지 시·군을 통하여 본인들로부터 직접 접수를 받아 교육 대상자를 확정했다.

충남도, 「여성발전위원회」 개최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06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심의 -



충청남도는 12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덕준 행정부지사, 신규 위촉여성발전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06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추진계획 ▲2006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계획 ▲여성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을 심의했다.

충남도는 2006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

여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 2006년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공모를 받아 여성가족 시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와 대학의 연구소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올해와 같이 기획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기획공모사업은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인권보호, 양성평등문화 확산, 보육, 건강한 가족문화 구현 등을 위한 사업이

며, ▲일반공모사업은 이웃사랑 실천, 건강한 모성지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전통(향토)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공명선거 및 민주시민 의식개발 등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155명에게 대학입학 등록금 7,750만 원을 2006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가 올해 추진한 41개 지원 사업은 현재 1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5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나, 한정된 사업비로 보다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점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충남도, 저소득 모자가정 가족여행 떠나

- 12월 15일부터 이틀간,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 15세대 42명 거제도 관광 나서-



충청남도는 도내 저소득 모자가정 15세대 42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거제도 내 주요 관광지 및 애광원 복지시설 등을 방문했다. 이번 가족여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문화관광

및 선진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견학하여 가족구성원간 친밀감을 조성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가족여행은 ▲첫째날(15일)은 우주항공박물관 관람, 애광원 복지시설 방문, 가족간 친밀감 조성을 위한 ‘꽃장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숙소인 장승포에서 진행 되었으며 ▲둘째날(16일)은 외도해상공원 및 유람선관광,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람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가족간의 사랑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쁨 · 감동 · 희망을 연주하는 장애인밴드단

- 공주문예회관에서, 장애인단체 및 가족, 지역주민 등 700여명 참석 -
- 전국 최초의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창단연주회 가져 -



충남남부장어인복지관(관장 임대혁)은 12월 14일 오후 4시 공주문예회관에서 기관·단체장, 장애인단체 및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선발하였으며,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33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장애인 밴드단이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악보를 잘 읽지 못하고 마우스피스를 물기에도 힘들다. 한쪽 팔이 불편해 악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도 없으며 짧은 동

요 한국을 연주하는데 3달 이상의 연습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단원들은 올해 1월부터 피눈물 나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1주에 2회 이상 지금까지 120여회에 걸친 연습을 통하여 이번 연주회를 준비했다.

이번 연주회는 동심을 불러 일으키는 동요를 비롯하여 우리 귀에 친숙한 대중가요,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 독주·합주 등의 형식으로 선을 보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날 沈 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 충남관악단 ‘희망울림’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가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역문화행사 참여 및 위문공연 등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문화 향유권 신장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를 통해 장애우에게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관객들은 장애우들이 연주하는 맑고 순수한 선율을 통해 가슴으로 음악을 느끼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news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책자 발행

- 지역별 특색음식점 100곳 안내지도와 함께 자세히 소개, 영·일·중국어로 내용소개, 전국관광안내소·해외사무소 등에 배포 -

충청남도는 지역별로 고유한 맛과 정갈한 특색음식점 100곳을 소개하는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22cm×3cm, 230쪽, 표지사진)을 발행하여 전국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 담은 특색음식점들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도내 100여곳의 맛깔스런 특색음식 소개와 함께 음식점의 주소와 연락처, 가격과 주차장, 찾아오는 길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 특징이며, 음식점 안내지도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한껏 도모했다. 한편, 이번 홍보책자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함께 소개하여 전국관광안내소와 관광공사,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며, 책자내용을 충청도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게시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홍보책자는 도해외사무소(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일본 구마모토)에 다량 배부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음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특히 책자 끝자락에 게재한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로 충남을 찾게 될 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홍순영 자원봉사자,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28년간 거동불편 환자 목욕해주기·무료경로식당 등 봉사활동 펼쳐 -



충청남도에 따르면 12월 7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2005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논산시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소속 홍순영(女, 58세, 논산시

내동 799번지, <사진>씨가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역사회의 훈훈한 분위기조성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지난 1977년부터 28년 동안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주요 공적으로 ▲

무의탁노인과 결연 후 김장지원, 청소 등 재가 활동(96회) ▲무료경로식당 음식조리 등(60회) ▲노인복지시설 방문 거동불편 환자 목욕시켜 드리기 등 (156회) ▲정신요양·장애인시설 방문 목욕, 청소(168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담가드리기(13회 1,300포기) ▲주변 관광지 자연보호활동(167회) ▲나눔의 장터 운영 (재활용품교환 및 판매) 27회 675천원 기탁 ▲ 농촌일손 돕기(11회) ▲폭설피해지역 위문품 및

노력봉사(하우스 30동, 1,750천원) ▲지역축제 및 각종행사시 급수봉사 및 먹거리 봉사(112회 435천명)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사)한국자원봉사 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최하여 2005년 한해의 자원봉사를 결산하면서 그 노고를 위로하고 범국민적 자원봉사정신의 기풍을 조성코자 추진한 행사이다.

충남도, 「자랑스런 충남인」3인 선정

- 12월 5일 도청대강당에서 시상, 표창패와 꽃다발 수여 -

자랑스런 충남인



유양선(71세)



이귀순(70세)



정백운(49세)

충청남도는 올해 4/4분기「자랑스런 충남인」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30여년간 몸담아 온 이귀순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협회회장 등 3명을 선정하여 5일 도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자랑스런 충남인상」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도민들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시상제로, 4/4분기 수상자로 ▲재경출향인 유양선(71세, 서산 해미출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충남상회 운영 ▲자원봉사활동가 이귀순(70세,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협의회장 ▲벤처기업인 정백운(49세, 천안시) 에버테크노(주)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이들 수상자의 주요 공적으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유양선씨는 서산 해미면 출신 재경 출향인사로 지난 1975년부터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젓갈류를 판매하면서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20여년 동안 어렵게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지난 1998년에는 평생을 모아온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한서대학에 흔쾌히 기증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전국 각 지역

의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각종 도서를 지원하는 등 봉사와 희생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유양선씨는 오랜 선행 활동으로 지난 2003년도에는 한국 상록회가 수여하는 “인간 상록수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도에는 MBC에서 방송했던 “칭찬합시다” 코너에도 출연한 바 있다.

▲이귀순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975년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부녀봉사회에 입회한 후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움직이는 사랑의 봉사대원」으로서 각종 재해와 재난 발생시 이재민을 위하여 완성한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20여년동안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밝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귀순씨는 30여년 동안 봉사활동을 실시한 시간이 모두 12,984시간에 이르고 있어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봉사활동의 표상으로도 인

정을 받았다.

▲정백운 에버테크노(주)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5월에 버려진 축사를 활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휴대폰 생산 자동화 장비등 국·내외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성공하여 충남 테크노파크 천안밸리 스타기업 1호로 선정됐다.

또한 도내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하는 내용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에버테크노(주)는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사업기술혁신대상”을 올해 충남기업인대회에서는 “창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랑스런 충남인상」수상자는 당일 심대평 충남지사와 대화의 시간도 가졌으며, 시상식장에는 가족과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 나누었다.

충남도, 「성매매방지대책 토론회」가져

- 11월 25일 천안시민회관에서, 성매매 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안방안 모색 -

충청남도는 25일 천안 시민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위원, 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남성회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방지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11. 25)



을 맞이하여 관련분야 활동가와 전문가의 성매매 실태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피해자 지원대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정 천안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제1주제 발표는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의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제2주제 발표는 신영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성매매 피해여성의 실태 및 보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강기정 천안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양임 서울 휴먼케어센터소장과 ▷이화연 충남성폭력상담소소장과 ▷서정옥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소장과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등이 주제발표 내용을 중

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유덕준(행정부지사) 충남도여성폭력·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도민 모두가 성매매에 대한 이해와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하는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자들의 처벌과 성구매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도, 『장애인 정보화경진대회』본선대회 열어

- 11월 17일 충남인력개발원에서, 본선진출 37명의 장애인이 참가 최고수 가려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지난 17일 충남인력개발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사이버 예선을 통과한 장애인 37명을 대상으로 ‘2005장애인정보화경진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선대회는 지체와 청각부문으로 나누어 사이버예선대회에 205명이 열린 경연을 벌여, 그중 예선을 통과한 최연소 참가자 연기군 조치원을 김성훈(20세)씨 등 37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정보검색” 경진대회를 펼쳤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표민애(46세)씨는 “비록 신체적으로 여건은 열악하지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떨지만 당진에서부터 대회에 참여하고자 일찍부터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로 지체와 청각 유형에 따라 난이도를 두었고, 대상이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충남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과 지원 등의 내용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시상은 부분별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등 12명을 선발하여 충남도 지체·농아인협회 장상과 함께 부상으로 각각 컴퓨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복합기 1대씩을 수여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1회 장애인대상 경진대회로 장애인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활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자기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충남도가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는 도 및 시군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장애인 정보화 촉진의 계기가 되는 청신호가 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가 장애인정보화에 도화선 역할을 하여 장애인 정보화 기반 조성 과 지원에 가속화를 기할 것이며, 그 외에 정보화 소외계층을 지속 발굴하여 전 도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하여 디지털충남 건설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유산·사산시 30~90일 유급휴가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노동부는 12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을 한 경우 건강 회복을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상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인공 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이 16~21주인 경우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최장 30일, 22~27주는 최장 60일이고, 28주 이상은 90일 범위내에서 유급휴가가 결정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

- '2본부 3국 2관 21팀'으로 조직 개편 -

여성정책본부·인력기획관·신설, 여성정책·HRD 강화

여성가족부가 기존의 조직을 성과지향적 조직인 팀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2월20일 오전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1실 4국 17과 2팀' 체계를 '2본부 3국 2관 21팀'으로 전환하며, 12월말까지 관련규정과 후속인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책홍보관리실과 여성정책국은 '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본부장·팀장 등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팀제 개편을 새로운 여성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부서 간 분산된 기능 조정 및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편에 따라 여성정책본부는 여성정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 외에 남녀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 남녀차별적 제도 정비(양성평등문화팀), 여성단체와의 협력(협력지원팀)업무를 여성정책본부로 이관 통합하였다.

특히, 여성정책본부 내에 '여성인력기획관'을 별도로 두고 기존 인력개발과를 '인력개발기획팀'

과 '인력개발지원팀'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여성인력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책기획평가팀'을 신설하여 분산되어 있던 정책총괄기능과 평가기능을 통합시켰다.

권익증진국은 그 동안 여성정책의 다소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노숙인, 빈곤여성 등 소외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정책 별도 추진할 수 있는 '복지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분산되어 있던 성폭력 예방 및 성희롱 예방업무를 '인권보호팀'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확대 개편된 '정책홍보관리본부'는 기존의 혁신인사기획·정보화전략·정책홍보팀 외에 국제협력업무가 이관되며 '성과관리팀'이 신설되었다.

'성과관리팀'은 성과중심의 혁신조직에 맞는 평가 제도를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연계 등 고객중심의 성과관리형 조직 기반을 체계화 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팀제 조직개편은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팀장은 직위공모, 본부 내 다면평가 등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 및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

- 1실4국2관 ⇒ 2본부(정책홍보관리본부, 여성정책본부)3국2관 체제
19개 과(팀) ⇒ 기능에 따라 21개 팀으로 재편
- 4단계(실·국장-과장-계장-직원) ⇒ 3단계(본부·국장-팀장-팀원)
- 본부장, 팀장 등 직급을 탄력적으로 지정
본부장 : 1~3급 (국장급 : 2~3급), 팀장 : 3~5급, 팀원 : 3급~기능

〈신설 및 폐지기구〉

- 신설 : 2본부(정책홍보관리본부, 여성정책본부), 1관(여성인력기획관), 4팀(정책기획평가팀, 인력개발지원팀, 복지지원팀, 성과관리팀)
- 폐지 : 1실1국(정책홍보관리실, 여성정책국), 1관(대외협력관), 2과(정책총괄과, 성별영향평가과)

겨울 아침

진 명 희

되바람으로 가득한 가슴에
문득 휘날리는 눈발
밧들레 흩씨처럼 날고 날아
이름 모를 땅위에 떨어져 쌓일 때

헛모르던 우리 남매들은
너른 마당을 이리저리 마구 뛰었다

눈발은 옷자락 자락에 스미고 스며
어머니 자궁 속처럼 깊숙한 곳에 떨어 들었다
추운 겨울을 아버지 생신으로 맞은 아침, 눈물이었다

오물조물 얼굴 맞대고 부대껴 살아온 우리 남매들
눈발이 되어 하늘 가운데로 헤매일 때

아버지는 가슴으로 눈발을 녹여
우리 남매들의 마른 길을 촉촉히 적혀주곤 하였다

겨울아침,
아버지의 기억은 따스한 바람이다.



약력

- [조선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 데뷔
- 제5회 충남예술문화상 및 제11회 충남문학 작품상 수상
- 한국예총 예산 부지부장 및 한국문인협회 예산부지부장

아픈 한 해를 보내며

김인숙 <주부, 서산시동문동>

12월에 접어들면 마무리라는 단어에 신경이 쓰인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나 되돌아보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반성도 해본다. 그러나 꼭 한해의 끝에서 조바심치면서 마무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알찬 생활의 연속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올해는 친정아버지께서 안타까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신 해여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해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어 본다. 집 앞에 눈이 쌓이면 마음이 심란하다. 아침밥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내려가서 눈을 쓸 시간도 없다. 그러면 슬그머니 일어날 생각도 없이 잠만 자는 가족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소복하게 쌓이는 눈을 그래도 보고 싶지만 그 깨끗함을 바쁜 현대인들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벌써 여러 명의 발자국이 흔적을 남기고 갔다. 그리고 그 위에 눈이 또 쌓이고 더 많아지는 발자국들. 그냥 창문을 닫아 버린다.

친정 동네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꼭 필요하다는 팔봉 진장리이다. 느낌이 질퍽한 흙길이 연상되는 마을 이름이다.

별써 40여 년 전 초등학교 다닐 때는 눈독길이 왜 그리 좁고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는지 모른다. 책보를 등에 메고 고무신이 벗겨질까봐 조바심하며 질퍽거리는 눈두렁길을 외출 타는 기분으로 가다보면 어린 몸으로서는 감당 못 할 넓이의 도랑물을 만나게 된다. 다행히 어른을 만나면 도움을 받아 신발을 빠뜨리지 않고 건널 때도 있었지만 간혹 신발이 떠내려가 발을 동동 구르던 추억도 있다.

이렇게 동네가 진땅이다 보니 눈이 오면 녹기 전에 쓸어야 뽕뽕뽕한 흙길을 유지할 수 있다. 친정아버지는 항상 그러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언제나 깨끗하게 눈이 치워져 있어 우리 집 모퉁이 길은 진장리 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지런 하시니 우리 남매들도 물론 늦잠 자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방문을 열어젖히시고 일어나라고 소리치시니 반 강제로 부지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셈이다.

소꼴을 베어 지게에 지시고 굵은 다리로 걸어오시면 작은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런 모습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내가 마흔 중반을 넘어서서도 아버지의 굵었던 다리가 가늘어지는 변화를 못 느끼고 나 사는 데만 급급했었다.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전화 드리면 추워서 집안에 계실 때가 많아지셨다. 그리고 친정집 모퉁이 길은 그냥 눈이 쌓인 채로 겨울이 지나갔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아버지의 추워하시는 모습은 계속되었다. 내복에 두꺼운 털 점퍼까지 입으시고 이불 속에서만 지내시기 시작했다.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찬 5월, 아버지는 고통을 참는 한계점에 다다라셔야 사위 등에 업혀 입원하셨다. 가늘어진 다리는 이제 혼자 힘으로 서 계시지도 못하고 차에 타시면서도 봄날이 서운하게 떨기만 하셨다. 나는 얼른 아버지의 구두를 챙겨 차에 실었다. 미처 닦아드리지 못한 구두는 굽에 흙이 잔뜩 묻어있었다. 그 구두를 신어보시지도 못하고 병원에서는 계속 숨쉬기 힘들어 입을 동그랗게 벌리시고 계셨다. 입안에는 하얀 반점이 생겨 타들어 가는 아버지의 아픔이 그대로 보여 차마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육창과 뼈만 남은 몸.

“아버지,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의 초점 잃은 눈이 내 마음을 알아챌까봐 죄스러울 뿐이었다.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대며 병원을 찾은 날 아버지는 내 마음을 읽으셨는지 벌써 운명하신 후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얼마나 평화로우신지 생전에 자상하고 다정하신 모습으로 돌아와 계셨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시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 여든여덟 살로 삶은 마무리 되셨지만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 그 추억만으로도 앞날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제17회 충남여성포럼 - 여성농업인 건강실태 및 증진방안 -

권정숙 청운대학교 교수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김경숙)에서는 11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포럼회원, 여성단체회원, 여성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건강실태와 증진방안'이란 주제로 제17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푸른충남 21의 예산지원을 받아 충남여성포럼 농촌환경분과가 주관하고 충청남도과 충남농업기술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쌀개방 반대 시위로 연일 농민들의 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는 어려웠지만, 참여자의 분위기는 여느 토론회 못지않게 사뭇 진지했다. 토론회 당일날 쌀개방에 관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져 충청남도 시군 곳곳에서 반대집회가 열린 날이기도 하였다.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기초발제에 김미숙 농림부 여성정책과장이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체계의 구축현황'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미숙 농림부 여성정책과장은 현재의 농업인 관련 의료체계에 대하여 첫째,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전국적인 기준에 의한 사회안전제도운영은 도·농간 복지 격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음. 둘째, 공공의료시설 등 기초보건 의료 인프라 부족, 농림어업관련 재해 예방 및 관리체계 미구축. 셋째,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증가 등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건강실태로 첫째, 여성농업인은 매우 강도 높은

농업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여성농업인의 농번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농업노동 9시간 3분, 가사노동 2시간 38분으로 총 12시간 10분에 달하고 있음), 둘째, 여성농업인이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비율은 49.8%이고 유방암, 자궁암, 위암 등을 포함한 암검사는 47.1%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그러나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단지 17.4%만이 종합검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셋째, 여성농업인의 출산후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9.05일로 나타나고, 40.4%가 채 1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의 산후조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농업인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율은 48.9%이고 51.1%는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내며, 다섯째, 여성농업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순위는 무료 건강검진, 물리치료실, 농가도우미 순으로 조사되었음을 밝혔다.

기조발제에 이어 제 1주제발표는 이선행(공주시 계룡면 보건소,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씨가 ‘충남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실태 및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안정순(홍성여성농업인발전센터장), 조강옥(예산여성농업인발전센터장)씨의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고, 제2주제 발표에서는 오미란(전국여성농업인회 정책위원장)씨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정책분석’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권정숙(청운대학교 교수)의 지정토론과 이어서 종합토론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선행씨의 주제발표에서는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보건소 사업이 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의 현황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대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보건소 방문보건 인력의 효율성 제고, 건강증진사업의 새로운 모델 개발 모색, 민간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연계방안의 필요 등을 제안했다.

오미란(전국여성농업인회 정책위원장)씨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정책 분석”이라는 주제로 향후 여성농민과 관련된 농업환경변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 설명하고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와 중요성에 대해 발표해 주었다. 특히 여성농민건강정책의 문제점을 제도적 측면, 기초보건 및 의료체계의 측면, 공공의료보건기관의 질 측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지원 정책 측면에서 비판하였고, 여성농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설명하였다.

제1주제의 토론자였던 안정순 홍성여성농업인센터장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농촌의 현실이 이러하건대 자신의 아이들에게 농촌을 지키라고 말 할 자신이 없음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지었다.

제2주제의 토론자였던 김영주 박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와 필자는 그간의 농촌지역 연구경험에 근거하여 각 주제발표자의 주장에 대한 동감과 질문으로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충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문제는 중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매우 적은 형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충청남도의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한희자 천안여성의전화 대표
(부설:가정폭력상담소소장)

사례 1) 가정폭력 사례 중 50% 이상이 술과 연관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시골마을에 날마다 불안과 초조속에서 가슴졸이며 사는 사람이 있다. 한평생을 남편에 가혹한 폭력에서 밤마다 산속바위 밑을 디뎌며 살았다. 남편은 극심한 알콜중독자로 두메 산골에서 결혼초부터 가난속에 찌들며 살아온 남편에게는 그나마 술은 최선의 위로자였다. 본래 남편은 성실하게 농사일을 했으며 생계는 나무를 해서 팔기도 하고, 감, 호두, 밤 등에 과일을 팔아 소득을 얻었으며 작은 땅을 소유하고 남의 집터에 지은 20여평의 농가에 살았고, 집둘레의 공한지에 유실수를 심어 소득을 얻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다(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자임)

아들 3형제와 딸 하나를 두었으며 그중 둘째 아들이 여자 관계로 자살미수에 이르러 십수년을 하체마비증세로 가정에 어두움이 들었다. 그 길로 남편은 술과 함께 지냈으며 매일 온갖 욕설과 함께 심한 구타를 아내에게 퍼부었다.

항상 아내를 무시하고 밭일을 같이 하다가도 마음에 안든다고 큰소리로 욕박지르고 공포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농기구로 위협을 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술 취함의 단계>

- 1단계 - 평소와 다른 행동 판단력과 사고 능력이 흐려짐, 무디어진 반사능력, 통제능력 없음
- 2단계 - 혼란단계 : 비틀거림, 시간, 장소, 관계 등을 구별하지 못함. 과장된 공포, 분노
- 3단계 - 인사불성단계
- 4단계 - 혼수단계

이웃사람과도 싸움이 잦으며 대낮부터 술병을 들고 이유없는 행패로 인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 대화의 상대가 끊겼으며, 그로 인해 밤마다 아내에게 성적으로 괴롭힘을 주며 심한 구타로 인하여 한밤중에 인근 산속 바위틈에서 날을 지새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도와준 이웃에게 보복과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어떤 이웃도 상대해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편이 알콜중독 치료보호소에서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제차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그후 더욱 심해진 듯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약해진 기억으로 성적추행을 강요하여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자아내게하여 괴롭힘을 당했다

<술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며, 공격성이 증가하여 자신을 폭력적으로 만들며 고함을 지르고 가족을 방치하며 상대가 원치않는 성적행위를 하기도함.
면담시 목격자나 이웃은 남의 집안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1. 가해자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자로 자포자기 상태였음.
2. 이웃주민들이 정신이상자로 상대해주지 않음.
3. 아내에게만 유일한 화풀이 상대였음.
4. 자녀들이 집을 떠나 객지에 떠나있어서 돌 보는 사람 없음.
5.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됨(현재).

<상담치료단계>

5년이 넘게 지속적인 상담(가해자 집중치료)

1. 가해자를 이웃으로 상대하여 인정단계.
2. 대화를 통하여 그에 말을 인정하여 주고 지난날에 잘한 점을 들춰 내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함.
3. 아내의 좋은 점을 찾아보게 함.
4. 아내와 함께 이웃으로써 인정(시간있을 때마다 대화, 식사시간 같이)
5. 그의 가족행사에 적극 참여 해 줌(신앙의 힘을 빌림, 깊은 감사)
6. 이웃사람들에게 그의 변화되는 모습을 소개 함(사람들이 차츰 이해 함)
7.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행패와 소란이 아닌 협조와 화합의 단계로 감

〈피해자에게〉

- 술을 집에 가능한 두지 않게 함.
- 술을 먹기 시작하면 자리를 피하게 함.
- 자주 외출하여 자녀들이나 친척집에 머무르게 함.
- 위급할 때에 신고처를 알게함(112, 1366)
-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할 수 있게 함.
- 피해사실을 전문가(상담원등)나 믿을 만한 친구에게 알리게 함.

사례 2) 가정폭력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한다

2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온갖 폭언과 폭력을 당해온 어머니를 보다못한 딸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 결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로 힘들어 했고, 직장없는 남편대신 가정을 돌봄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어머니의 어려움과, 걸핏하면 가재도구나 칼 등의 위험도구로 위협하는 아버지의 행패에 항상 불안과 초조한 나날을 보내던바 “추석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트집 잡아 모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칼과 망치를 꺼내어 협박하던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죽인 딸의 비극적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오랜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항시 생명에 위협을 느낀 경우가 많았고(딸이 17세 때에는 모녀를 공동묘지에 데려가 어머니를 포승줄로 묶고 신나를 뿌려 죽이겠다고 위협했음) 또한, 딸에게도 친구들 보는 앞에서 발로 차고 돌로 머리를 치는 등 집안에서는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했음.

〈피해자가 가정을 떠나지 못한 이유〉

- 이혼 별거후 폭력남편이 찾아와 폭행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 폭력 남편을 신고하거나 떠났을때의 보복이 무서워서
- 외부에 알려지면 집안의 명예손상 및 창피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
- 반복된 폭력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이 상실되었기 때문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반복된 가혹행위로 발생됨을 주요하게 여겨 근본원인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피해모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명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의 요지

지난 0월 0일 의치중으로 인해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아버지를 딸이 만류하다가 결국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일 어머니를 아무런 이유없이 괴롭히고 추석인사 메시지가 어머니에게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모녀를 무릎을 꿇게 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는 등 폭력과 폭언을 하고, 보일러실에서 망치를 부엌에서는 칼을 꺼내 놓은 채 모녀를 살인에 이를 수 있도록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위 사건에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경찰에 심도있는 조사에도 불구하고 모녀가 “존속살인, 사체유기죄”로 기소된 것은 적절치 않다.

모녀의 사건은 형법제21조 제1항, 제3항에 의거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며 따라서 무죄로 인정해야 하고, 남편이 먼저 칼과 망치를 휘둘렀고, 남편 가까이에 칼과 망치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폭력의 연장상황이라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은 생명에 위협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었다고 본다.

본 대책위원회는 모녀가 무죄임이 밝혀질때까지 전국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참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999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7~12	정 책 개 발 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자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7~12		
충남여성의 의식실태 조사	7~12		
'99 충남여성통계	7~12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주관부서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	'99. 9. 8	도청 대강당	300명	여 성 교 육 부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	'99. 9.2~11.9	시·군순회	2,000명	

2000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12	정 책 개 발 부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1~12		
충남여성농민 고용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2~12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12		
충남여성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여성을 위한 직업모음	9~11		핸드북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4. 27	본원 대강당	50	정 책 개 발 부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5. 12	청양대 대강당	250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샵	6. 23	본원 대강당	44		
개원1주년 기념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7. 14	본원 대강당	50		세미나
충남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9. 22	본원 대강당	36		
충남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10. 26	본원 대강당	20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담당 공직자 과정	4. 11	본원 대강당	31	여성 교육 부	
보건담당 공직자 과정	5. 17	본원 대강당	28		
여성상담원 교육과정	5. 26	본원 대강당	37		
道 공무원교육원 강의	6. 1~6. 13	공무원교육원	600		총4회
여성단체지도자 과정	6.16, 6.21, 6.29	본원 대강당	135		총3회
사회교육강사 과정	7. 28	본원 대강당	44		
여성체육인 과정	8. 22~8. 24	천안상록유스호스텔	75		
여성정보화 과정	9. 25~9. 29	연기군청 정보화교육장	20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강의	9. 25~9. 29	대전시공무원교육원	120		총3회
여성단체실무자 과정	10.13, 10.19	본원 대강당	87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10. 17~11. 24	논산, 공주, 홍성, 부여, 연기군	122		총5회
부모교육 강사과정 강의	10. 19~10. 20	예산군 가야관광호텔	250		
부부농업인 교육과정	12. 18~12. 19	농협공주교육원	24		
중국교포와 결혼가정 문화강좌	12. 19~12. 20	부여청소년수련원	33		

2001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연구	1~10	정 책 개 발 부	
여고생 직업의식 강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5~12		
충남여성 IT 전문인력 개발 방안	5~12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5~12		
충남 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1~12		
충남 여성자원활동 수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12		
충남 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연구	1~12		
충남 보건소의 여성보건사업 현황과 과제	7~12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1~10		
2001년 충남여성통계	7~12		
충남 여성의 정치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여 성 교 육 부	
충남지역 여성신지식농업인 발굴사례 연구	1~12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1~12		
농촌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7~12		

* 개원이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 고
충청남도 성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3. 9	본원 대강당	70	정책개발부	
농촌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3. 29	본원 세미나실	67	"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4. 17	본원 대강당	70	"	
성폭력 관련 담당자 워크샵	5. 10	본원 대강당	98	여성교육부	
개별화 교육 워크샵	6. 4	본원 대강당	200	"	
개원2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참여」	7. 6	본원 대강당	80	정책·교육부	공동수행
여학생·학부모 진로/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camp	8. 6~ 8. 11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90 (45명 2회)	정책개발부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사업
전국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10. 22	본원 대강당	80	"	여성부 후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모색 워크샵	10. 26	세미나실	4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과정	2. 1~2. 21	천안YMCA강당	20	여 성 교 육 부	
여성경찰리더십 향상 과정	2. 9	본원 대강당	55		
여성공직자 과정	3. 22, 3. 30	본원 대강당	75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4. 10~11. 30	공주 아산 당진 예산 태안 연기보령	202		총7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4. 18~5. 10	본원 대강당	42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	4. 23~5. 17	충남공무원교육원	210		총7회
여성자치대학	4. 25~10. 31	서산, 금산, 당진, 공주	259		총4회
여성·아동복지상담원 교육	6. 20	본원대강당	176		
여성창업 과정	7. 9~7. 13	본원대강당	50		
한부모가정 상담자원활동자 교육	7. 19~7. 20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0		
개별화교육 교원 연수	7. 23~8. 3	대전 서원초등학교	65		총2회
여성단체활동가 과정1기	8. 31	칠갑산자연휴양림	50		
여성단체활동가 과정2기	9. 7	보령정심원	15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1기	9. 13~9. 15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5		
문화유적지 안내도우미 과정	11. 5	본원세미나실	2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11. 8	공주대 시청각실	70		
선거자원활동자 과정	11. 16	본원대강당	100		
여성정치외식 향상을 위한 워크샵	11. 16	본원대강당	10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2기	11. 29~12. 1	본원 세미나실	20		
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과정」	12. 27~12. 28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71		

2002년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역사속의 양성평등 제도 사례 연구	2~6	정책개발부	
충남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11		
충남 노인간병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2~11		
충남여성 1366 네트워크 형성방안 연구	2~11		
충남 여성공무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연구	2~11		
충남여성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능력 향상방안 연구	2~12		
충남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2~12		
충남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2~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여성농업인 정책비교 연구	2~12		
충남 행정의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12		
충남 여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12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관련 법률안내	2~10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2~10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2~12		
충남지역 친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연구	2~12		
농촌지역 여성 평생학습 지원방안 모색	2~1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노인간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5. 22	세미나실	4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1366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워크샵	5. 24	세미나실	40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5. 31	대강당	57	여성교육부	
개원 3주년 기념 「충남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7. 23	대강당	80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1	"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고충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0. 31	홍성 홍동면사무소	42	여성교육부	

■ 교육사업

연구과제명	일자	장소	비고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1차교육	2. 22	꽃박조직위	18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2차교육	3. 20	꽃박조직위	19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3차교육	4. 10	꽃박조직위	201
성교육 자원활동자 과정	5. 27-5. 31	대강당	42
한부모가정 소모임 운영을 위한 여성문화활동가 과정	6. 24-6. 28	세미나실	26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7. 12-7. 13	대강당	62
공주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한마음 여름캠프	8. 1-2(1박2일)	대강당	40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8. 28-8. 30	세미나실	31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과정	8. 29	공주농업기술센터	200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학교	9. 2-9. 16	서산시청	112
여성공직자 과정 1,2,3차 교육	9. 30/10. 2/10. 4	대강당	18/27/27
2002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10. 7-11 본선 10. 18	사이버예선 청양대(본선)	646

2003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03. 1~8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03. 1~11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소득증대 지원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3. 1~1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03. 1~11		
농가도우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3. 1~12		
충남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03. 1~12		
2003년 충남여성통계	03. 1~12		
충남지역 여성소모임 활동사례 연구	03. 1~12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03. 1~12	여성교육부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03. 1~12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03. 1~12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가 교육	2.10-14	세미나실	27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25/26/27	대강당	74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4.28~5.2	세미나실	27	
2003주부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4.7~11 본선 4.25	청양대학	1,23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6.9~7.1	세미나실	33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여대생 캠프	6.27~28	대강당	51	
당진군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9.16(1차), 9.23(2차)	당진군 가정 복지회관	118	
2003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9.22~9.26, 10.15	청양대학	446	
여성참여마을 만들기	9. 30	천안대	207	
아산시 여성단체활동가 교육	11. 3~4(1차) 11. 5~6(2차)	세미나실	81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11. 11~12	세미나실	30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2. 3	대강당	6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3. 12	천안시민 회관 소강당	160	정 책 개 발 부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워크샵	6. 5	세미나실	35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7. 7	대강당	200	여성교육부	
충남 재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워크샵	7. 15	세미나실	26	정 책 개 발 부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방안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0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10. 9	세미나실	10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12. 9	세미나실	10		

2004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농업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충남여성농업인 생활양식 연구	'04. 1~10	정책연구실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04. 1~11		
이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04. 1~12		
충남 특수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4. 1~12		
충남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 방안 연구	'04. 1~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 복지정책 비교연구	'04. 1~12		
충남 여성공무원 리더십 향상 방안 연구	'04. 1~12		
충남 여성 통리장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04. 1~12		
충남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04. 1~12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고취교육 방안 연구	'04. 1~12		

■ 교육사업

주제	일자	장소	인원(명)	비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 10~12	본원 세미나실	26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4. 19~23(A조) 4. 26~30(B조)	본원 세미나실	81 (39명, 42명)	
2004주부인터넷경진대회	4. 19~4. 23(예선) 5. 7(본선)	사이버에션 청양대학(본선)	3,099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5. 24~6. 4	본원 세미나실	42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상담원 양성교육	5. 27~28	대강당 / 세미나실	43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교육	7. 12~27	대강당	59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	8. 16~17	대강당	82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9. 2~3	세미나실	27	
여성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교육 (결혼초기)	9. 9~10	세미나실	20	
2030우먼리더십 캠프	9. 21~22	대강당	43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2004 실버인터넷경진대회	10. 4~13(예선) 10. 22(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교	496	
여성부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교육 (예비부부)	11. 1~2	세미나실	24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1. 11	세미나실	30	
충남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1. 18	예산 농촌진흥원	300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여성 통·리장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 17	천안 쌍용 3동 사무소	7	정 책 연 구 실	
개원5주년 기념 한·일 여성노인정책 포럼	7. 07	선문대학교	120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	7. 09		25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 워크샵	12. 20	세미나실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샵 개최	12. 23		20		

2005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05. 1~12	정 책 연 구 실	
충남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05. 1~12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실패요인 및 성공전략 연구	05. 1~12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05. 1~12		
충남 농촌여성의 평생교육 요구조사 및 교육만족도 향상방안 연구	05. 1~12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05. 1~12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05. 1~12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고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3.14~3.18 4.11~4.15	세심당 세미나실	58명 (23,35)	
관악구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4. 18 ~ 19	세미나실	42명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과정	5. 9 ~ 5. 31	세미나실	37명	
2005주부실버정보화 경진대회	5. 9 ~ 13(예선) 6. 3(본선)	사이버경연 청양대학	1,268명	
농촌지역 방과후 교실 보조교사 교육	5.13~7. 8 (주1회 60시간)	세미나실	34명	
관광마인드 서비스 향상 교육	6. 1 ~ 6. 2	대강당	49명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문화체험 교육	6. 29 ~ 7. 20	세미나실	36명(19,17) 참여:10,16=26 총62명(29,33)	
혼인귀화 여성농업인부부 자녀캠프	7. 25 ~ 7. 27	세미나실	38명	
2005년도 여성정치대학	9. 5 ~ 9. 14	본원 세심당	22명	
2005충남장애인정보화 경진대회	10. 28 ~ 11.1(예선) 11.17(본선)	사이버경연 충남인력개발원	500명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축제	2005. 11.2		350명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2005.11.30		24명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7. 19	세미나실	30	정 책 연 구 실	